

3월의 기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2절>



1.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 들입니다. 한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날의 아픔을 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창조 신비는 과학이나 철학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4. 우리가 눈앞의 세상적인 손해에 연연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내 삶에 어려움과 절망을 뛰어넘는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이태원내과의원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께 말기라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의 성회를 인도할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데 파키스탄 정부가 집회 장소를 큰 장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장소로 주고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회 첫 날에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다 보니 하루 만에 내 목이 꼭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성회 시간이 되어 성회 장소에 갔는데 경찰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인지라 그때 저는 체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이 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하, 나를 체포하러 온 것은 아니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목사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몹시 아픕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병 고치려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저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들이 손수 마이크에 전원 스위치를 넣어 주어서 성회 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 집회를 녹화하여 전국에 방영하고 각 신문사에서 우리 집회를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그때부터 나 혼자 길거리나 호텔 로비에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약 6천 명의 결신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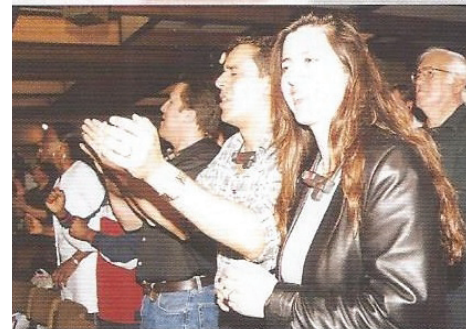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영국 런던성회>



▲ 성회에 참석해 주님을 찬양하는 영국인들



▲ 성공회 성당을 가득 메운 한인들



▲ 조용기목사의 강연에 귀 기울이는 세미나에 참석한 성공회 신부들



▲ 조용기 목사를 소개하는 성공회 신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유럽에서도 종교 사정이 복잡한 나라인 영국은 헨리 8세의 종교 개혁부터 성공회가 국교로 지정되어 그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국은 근대까지도 그리스도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의 영국은 그 때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영국 역시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속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갈수록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몰락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은 영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예 문을 닫고 반쯤 폐허가 된 교회나 성당 건물들도 많다. 특히 성공회를 포함한 여러 개신교 교파들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런 영국 런던에서 2002년 5월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번 3월호는 유학생을 비롯해 유럽 선교사 및 런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기도운동과 성령운

동을 펼쳤던 영국 런던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2002년 5월 15일과 16일 영국 런던 크리스처스 처치 센터(Christ Church Center)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 '청년 및 유학생과 한인들을 위한 런던 성회'를 열고 영국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영적각성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성회로 이들은 영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각 교회별 기도회와 연합기도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회성장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기로 각오를 다졌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가난과 질병,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한 주최측은 "영국은 성공회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계기로 오순절 성령운동이 불 붙기 시작했

다"고 말하면서 웨슬리의 대각성운동 이후 다시 일기 시작하는 영국의 성령운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14일에는 세계하나님의성회(WAGF) 교단회의에 참석, 성령운동을 전망하고 교회부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15일 오전에는 영국 성공회 신부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교회성장 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민자들의 숫자가 많은 영국은 이슬람교의 빠른 성장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현대 영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성향이 눈에 띈다. 물론 아직까지 영국 종교계의 주류인 성공회의 힘은 막강하지만 그마저도 성공회의 위치,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 등의 문제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국 땅에 유일한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절실한 때이다. DCEM은 오는 9월 조용기목사님 추모예배 성회를 주관함으로써 20년전 복음을 외쳤던 그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신사의 나라 영국 땅에서 잠든 성령의 역사를 깨우고자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에너지가 있어야 생기가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훼에게서로다 ...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아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8절)

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많은 힘을 쏟는 등 육체적 에너지가 다 소모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니까 마음이 순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쉬을 가져야 건강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잠을 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육체적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급 처방은 바로 먹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 마음의 에너지

둘째,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무기력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마음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과 희락과 거룩함과 화평과 인내 등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정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 시로 식사를 해야 육체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쳐서 인생을 맑고 밝고 생기 있게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병원에 건강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몸이 말랐는데요. 몸이 너무 비대해도 나쁘고 또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여위어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옛말에 ‘곡기가 떨어지면 생기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 이상으로 몸무게를 낮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에너지가 없고 생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두에 에너지가 충만해야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1. 육체의 에너지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우리나라 직장인 열 명 중 아홉 명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번아웃란 연료가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자동차는 멈춰 서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기도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엘리야가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피로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야는 육체적인 에

3. 영의 에너지

셋째로,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생기 없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신앙의 건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은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씹어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무릎이 떨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우리의 몸과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한복음 14장 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 혼, 육이 골고루 에너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영, 혼, 육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2)

오중복음은 사색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용기 목사의 인간 이해와 목회 현장의 체험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인간을 절대 절망의 존재로 보았다. 절망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병 고침을 경험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산에게 오중복음은 제자 교육을 위한 원리이기도 했다(임형근, “목회적 관점에서 본 영산의 오중복음 이해”, 78~79). 오중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영산은 오중복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신앙의 내용과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오중복음이 신앙을 위한 이론과 교리를 제공한다면 삼중축복은 그와 같은 이론과 교리를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삼중축복은 복음을 통해 전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와 육체까지도 구원하셨다. 전인 구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며 성경의 근본적인 뜻이다”(조용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251). 요한삼서 1장 2절이 삼중축복의 내용을 잘 요약해준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축복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삼중 타락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첫째, 영적 죽음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둘째, 환경적 저주이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물질세계 역시 저주 아래 놓이고 말았다(창 3:19). 셋째, 육체적 죽음이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영을 죽게 했을 뿐 아니라 육체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삼중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은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좋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라는 삼중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삼중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영산의 삼중축복 신학은 그의 목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그의 성경 해석과 설교는 철저히 삼중축복이라는 틀을 통해 행해졌다(조용기, 『삼박자 구원』, 19). 삼중축복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타락-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구원 이후의 축복’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영산은 이런 구조에 따라 성경을 ‘타락-구원-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고 설교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설교했다. 영산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언제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의 실존을 언급했고 이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야 할 영적, 환경적, 육체적 축복을 선포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산 신학의 핵심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사변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철저히 영산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목회 원리였다.